

## 영적 가정으로서 공동체의 비전 마 12:46-50 & 요 17

신약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일컬어 가장 많이 사용된 은유의 표현이 “가정” “식구”입니다. 영어로는 household, family, 헬라어로는 oikos.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의 성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육체적 가정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영적 가정입니다.

### ● 마태복음 12:46-50

각 사람마다 경험한 가정이 틀리고, 각 가정마다 문화가 틀리다. 우리는 스스로 경험한 가정과 관계들을 통해 각자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다. 어떻게 대화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푸는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한 가정의 문화 대로 살아가면 안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는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오늘의 질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에 (영적 가정, 공동체) 원하시는 문화와 관계는 어떤 것인가?

1. 하나님의 가족의 문화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 ● 빌립보서 3:10-21 ○ 10-12 절

사도 바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가지 무브먼트로 정리 할 수 있다: (1) 그리스도를 아는 것 (2)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3)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것

공동체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아야 한다.  
2 차적인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영적 가정이 되어진다.

말씀/지식, 섬김/봉사, 방언/능력, 교제/관계, 전도/선교, 등은 모두 좋은 것들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도구, 문맥, 혹은 열매이지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아니다.

2.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을 통해 서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도록 돕는 관계이다.

### ● 에베소서 4:13-16

- “Speaking the Truth in Love”
- “Truth without love is harshness; it gives us information but in such a way that we cannot really hear it. Love without truth is sentimentality; it supports and affirms us but keeps us in denial about our flaws.” (Tim Keller)
- (번역)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혹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게 주어집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세가지 언약:

- (1) 절대로 호박씨 까지 않는다. 절대 신뢰.
- (2) 조금이라도 서로 간에 이상한 마음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픈해서 나눈다. 절대 투명.
- (3) 서로 의견이 틀릴 시에는 열정적으로 논쟁 하되,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한번 결정이 된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 결론이 나의 개인 의견인 것 같이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 **요한일서 4:20**
- 관계적인 성숙 없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 또한 없다.

문제: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하고 사랑하고 격려 해 나가는지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기에, 새로운 문화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훈련, 서로 진심으로 들어 주고 품어 주는 훈련을 통해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결단하자.

3. 하나님의 가정의 문화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 **고린도전서 13 장**
- **요한복음 17 장 (1, 9-11, 20-26)**

4. 영적 가정으로서 공동체가 건강하여 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 **요한복음 13:35**
- **사도행전 2, 4**

## 묵상 및 나눔을 위한 질문

-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영적 가정으로서 어떤 문화가 있는가?
  - 어떠한 강점이 있는가?
  - 어떠한 약점이 있는가?
- 어떻게 하면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 나는 이 영적 가정의 중요한 지체로써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 (고)김석수 목사님의 일기 - “나의 정체성”

나의 목적은 주님이다.  
그리고 그분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나의 소망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비전은 그분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들... 가족, 공동체와 함께  
영원토록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